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신임 연준 의장, '금리 인하와 자산 축소' 목표에 난항 예상
- CNBC 미 AI 확산으로 현장 기술직 뜬다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금리 급등에 투자자들 딜레마

[이린 잔젱]
- Bloomberg: 트럼프, 걸프국 요청에 이란 공격 보류

[오일]
- WSJ: 트럼프 유화 제스처에 오일가 하락…여전히 높은 가격

[뉴욕시]
- Bloomberg: 맘다니 뉴욕시장, 월가 CEOs 연쇄 면담…관계 개선 목적

[인공지능]
- Bloomberg: AI 열풍, 실제 큰 변화 유도…감원·M&A 격변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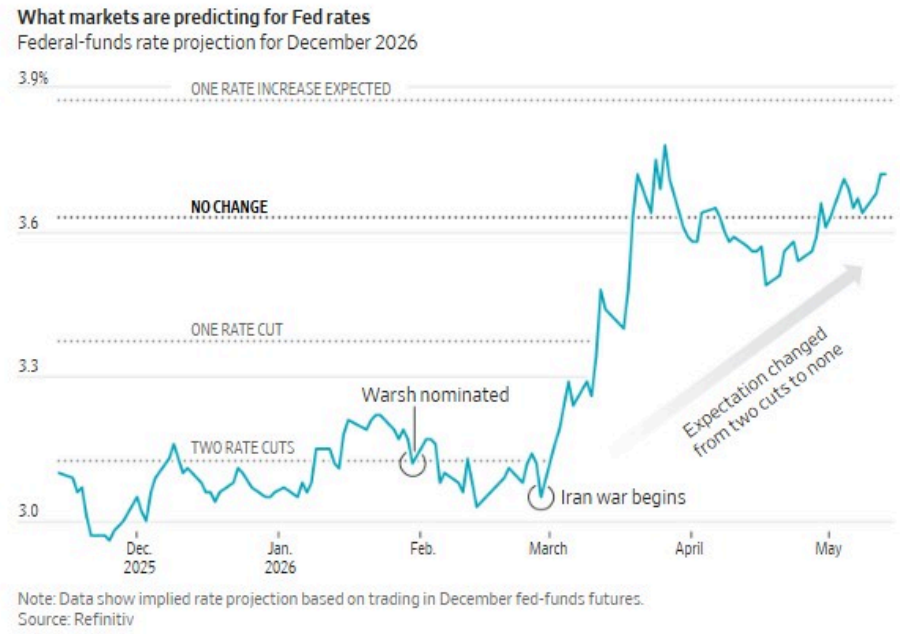
[골드만 삭스 자료]
- 글로벌 시장 전망: 공급 부족이 자본 흐름 주도
- 글로벌 전망: 구부러졌으나 부러지지 않는다
- 유가 분석: 해협 개방 후 걸프 지역 생산량은 얼마나 빨리 회복될까?
- 이란 갈등: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
- 오디오- 새 연준 의장의 연준 정책에 미칠 영향
- 오디오 - 제롬 도트먼이 분석한 유가 시장의 동력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The Economy Kevin Warsh Is Inheriting Is Not the One He Wanted
신임 연준 의장, '금리 인하와 자산 축소' 목표에 난항 예상

-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와 자산 차트 축소라는 자신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고용 시장의 안정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추진을 약화시키고 있다.
- 아울러 6조 7,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작업(시중의 유동성 줄어 금리 인상 간접 효과) 역시 과거 시장의 발작(Tantrum)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사

CNBC: The AI economy is rewriting the American Dream — and blue-collar workers are poised to win
미 AI 확산으로 현장 기술직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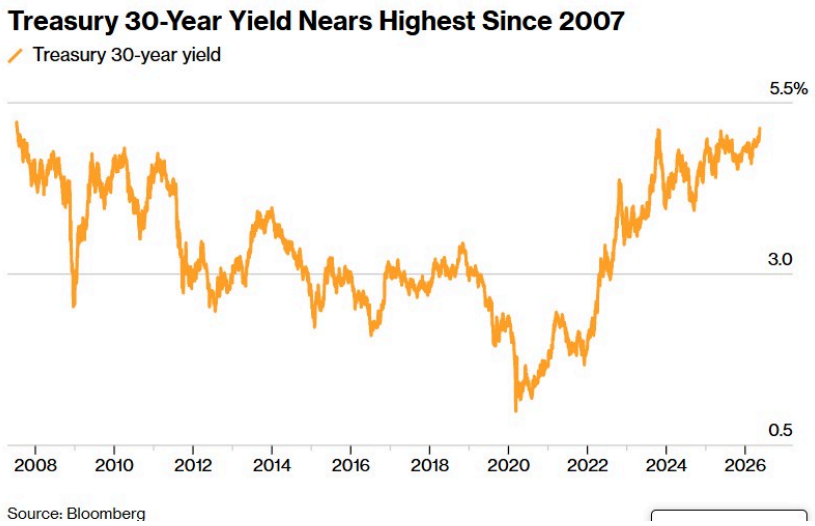
- 인공지능이 미국 기업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학 졸업 청년층이 일자리 위기에 직면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군의 초급 직원 채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면 포드, 엔비디아, AT&T 등 주요 대기업들은 AI 경제의 기반이 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장 기술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 실제로 통신사 AT&T는 광섬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최전선에서 일할 숙련 기술직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기사

[금융]

Bloomberg: Bond Yields Near Two-Decade High Open Rift Among Investors
미 국채 금리 급등에 투자자들 딜레마

-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고금리를 선점하려는 매수세와 추가 폭락을 경계하는 관망세가 맞서고 있다.
-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에 육박하자 기관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신중론을 폈고, 바클레이즈와 시티그룹은 금리가 5.5%가 넘을 수 있다고 봤으며, 블랙록은 국채를 줄이고 주식을 늘릴 것을 권했다.
- 이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둔화라는 상반된 전망이 충돌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이란 전쟁]

Bloomberg: Trump Says Iran Strike Called Off After Gulf Allies Appealed
트럼프, 걸프국 요청에 이란 공격 보류

-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새로운 폭격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 그는 이란과의 논의를 위해 미국의 공습을 "잠시, 어쩌면 영원히" 연기했다고 언급하며, 향후 체결될 모든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타르는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란 측은 회담 재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Slip After Trump Backs Away From Fresh Attack
트럼프 유화 제스처에 오일가 하락…여전히 높은 가격

- 글로벌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하락했으나,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여전히 최고치 근접에서 거래되고 있다. 1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 트럼프가 월요일 이란에 대한 재공격 위협에서 물러서며 이틀간의 급등세는 진정됐다. 이에 따라 페르시아만의 석유 유출을 허용하는 평화 협정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 같은 날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제재 우려 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30일짜리 '한시적'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유가가 폭등하던 3월 첫 도입 이후 두 번째 연장 조치다.

기사

[뉴욕시]

Bloomberg: Mamdani Meets Wall Street CEOs as Tax Pitch Roils City's Wealthy
맘다니 뉴욕시장, 월가 CEOs 연쇄 면담…관계 개선 목적

- 맘다니 뉴욕시장이 비즈니스 업계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JP모건, 골드만 삭스 등 월가 최고경영자(CEO)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 이번 면담은 맘다니 시장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을 지지함으로써 억만장자들과 부동산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 맘다니 시장은 JP모건 CEO와는 정부 지출 낭비 방지와 민관 협력 방안을, 모건 스탠리 CEO와는 적정 가격의 보급형 주택 공급 및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AI Moving From 'Hype' to Real Execution, JPMorgan's Brunner Says
AI 열풍, 실제 큰 변화 유도…감원·M&A 격변 예고

- JPMorgan Chase 글로벌 투자 및 인수합병(M&A) 부문 책임자 Kevin Brunner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실 세계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 기반 자동화의 결과로 실제 대규모 인력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은 향후 4년간 지원 부서 인력 약 8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들이 시장 내 자사의 위치와 AI 적용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향후 인수합병 시장에 미칠 AI의 파급력 역시 상당할 전망이다.

기사

[골드만 삭스 자료]
(Goldman Sachs가 KOCHAM 위해 제공한 경제정보들)

Global Market Views: Shortages
글로벌 시장 전망: 공급 부족이 자본 흐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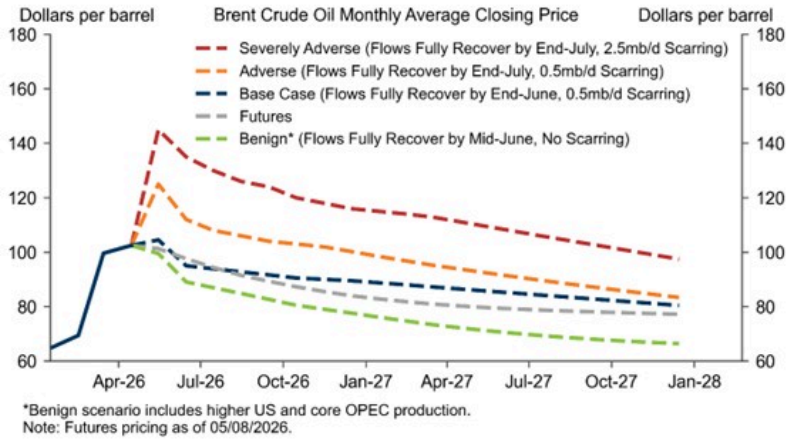
- 이란의 휴전 소식과 극단적인 하락 위험(꼬리 위험)의 감소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덜어내며 다양한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 변동 폭이 좁아지는 현상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종종 시장의 급등을 견인해 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증명됐다.
- 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고금리·원자재 통화, 신흥국 시장(EM) 등 광범위한 자산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관련 자산들은 이번 사이클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 현재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공급 부족'이다. 원자재 시장과 AI 공급망에서 나타난 공급 부족 현상이 자본 흐름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Global Views: Bending, Not Breaking
글로벌 전망: 구부러졌으나 부러지지 않는다

- 호르무즈 해협의 10주간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지금까지 비교적 완만한 타격을 입은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첫째, 유가가 예상만큼 급등하지 않았다. 이는 전쟁 전 재고 수준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데다, 지나친 소비자 물가 상승이 결국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 둘째, 항공유 등 특정 분야의 물리적 공급 부족이 비교적 고통이 덜한 방식의 '수요 파괴'를 통해 해결되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로의 대규모 전환, 글로벌 저수익 노선의 운항 감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셋째, 재정 정책과 AI 붐이 지속적인 지지대 역할을 한 가운데, 지난 3월 잠시 주춤했던 금융 여건 역시 올해 내내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을 뒷받침했다

Exhibit 1: Oil Price Risks Still Skewed to the Upside



Source: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기사

Oil Analyst: How Fast Can Gulf Production Recover After Reopening?
유가 분석: 해협 개방 후 걸프 지역 생산량은 얼마나 빨리 회복될까?

- 전쟁 전 수준 대비 약 1,450만 배럴(또는 5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걸프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후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 두 가지 조건, 즉 1) 석유 자산에 대한 추가 공습이 없고, 2) 향후 몇 개월 내에 해협이 안전하게 전면 개방된다는 가정하에 걸프 지역의 생산량은 개방 후 몇 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해협 폐쇄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경우,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예상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

기사

Top of Mind: Iran Conflict: How Long, and How Bad?
이란 갈등: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

-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공조 공격으로 이란이 타격을 입으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마비되고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경제와 금융시장에 초래할 파장은 무엇인지가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기사

오디오 - How Warsh Could Shape Fed Policy
새 연준 의장의 연준 정책에 미칠 영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연준 의장에 취임했다. 통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한 롭 카플란 골드만삭스 부회장이 워시 지명자의 통화정책, 대차대조표 관리, 그리고 시장 소통(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잠재적 접근법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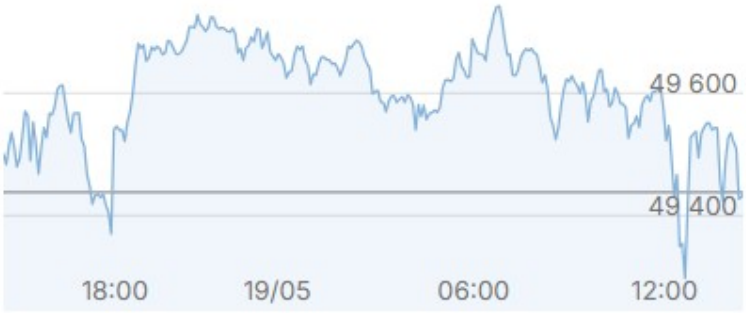
기사

오디오 - Jerome Dortmans on the Drivers of Oil Markets
제롬 도트먼이 분석한 유가 시장의 동력

- 이란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낙관론 덕분에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 그러나 골드만삭스 글로벌 뱅킹&마켓 부문의 글로벌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공동 총괄인 제롬 도트먼은 상황이 보기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그는 크리스 허시와의 대담에서 원유 및 정제 석유제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과 잠재적인 트레이딩 기회에 대해 논한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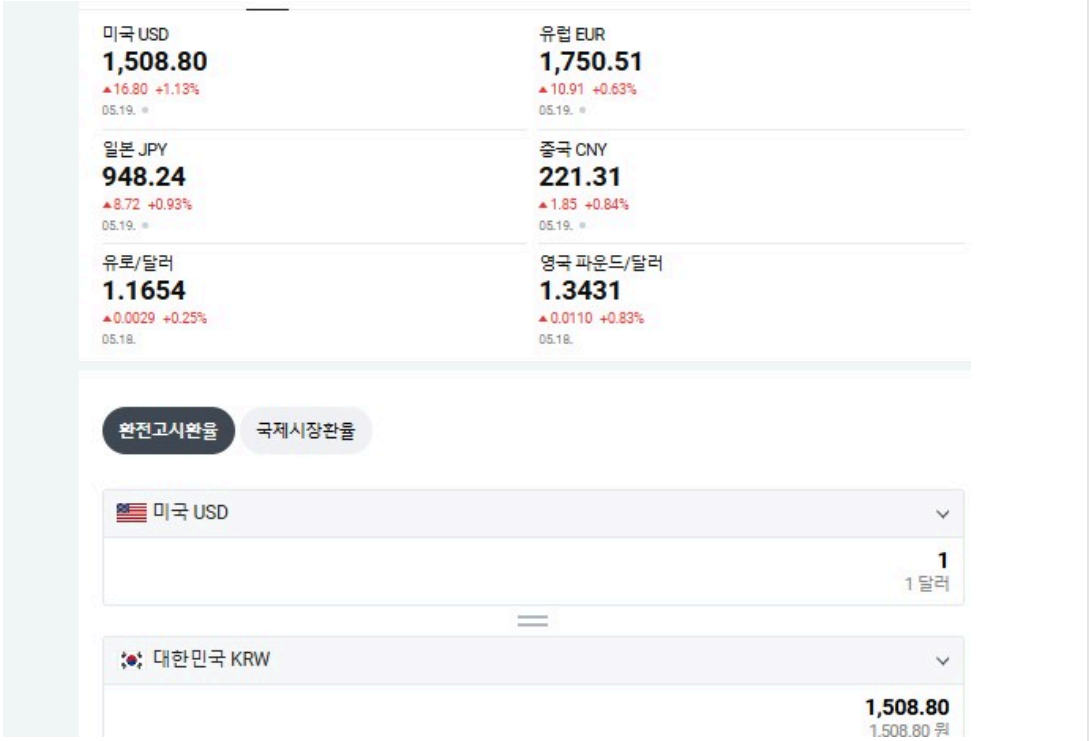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49,417.50	-268.6	-0.54%
US 500	7,342.90	-60.1	-0.81%
Dow Jones	49,444.04	-242.08	-0.49%
S&P 500	7,343.46	-59.59	-0.80%
Nasdaq	25,778.76	-311.97	-1.20%
S&P 500 VIX	18.07	+0.25	+1.40%
Dollar Index	99.33	+0.225	+0.23%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	-30/32	5.182	0.055
10-Year Note	4.375	-29/32	4.679	0.086
7-Year Note	4.125	-28/32	4.514	0.099
5-Year Note	3.875	-27/32	4.349	0.108
3-Year Note	3.875	-3/32	4.223	0.106
2-Year Note	3.75	-2/32	4.139	0.080
1-Year Bill	0	1/32	3.831	0.037
6-Month Bill	0	0/32	3.739	0.007
3-Month Bill	0	0/32	3.668	0.012
1-Month Bill	0	-1/32	3.624	-0.021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